

당서초등학교 2학년 5반 이유헌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

제목 : 달리, 달려라 기차야

나는 인라인을 아란이, 내동생과 인라인을 타자고
아란이한테 부탁했다. 하지만 안가줄게
번했다. 할수없이 나 혼자 인라인을 신고 나가서
타다. 그나저나 동생이 있는 것보다는 더 편했다.
타고있는데 내 사촌동생 당서초등학교 1-3
양수빈이 자전거를 타고 나랑놀자고했다.
우리가 할수있는건 기차놀이 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신나게 놀았다.
기차놀이의 방법은, 한사람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끌고, 다른 한사람은 자전거를
타고있는 사람에게 안장을 붙잡고 만만히
서서가며 자전거를 타는 놀이다. 이 놀이는
수빈이의 아빠, 셋째. 고무부가 만들어 주신 놀이
다. 나는 기차놀이가 재미있다. 오늘 인라인을
타기전엔 좀 화가났지만 마음에 안맞기였지만
수빈이랑 놀고난뒤에는 즐겁고 마음이
한결, 바람같이 마음이 가벼워졌다. 전에는
많이 싸웠지만 그날은 안싸워서 어머니들
게서 기뻐하실것같다.